이낙연, '대선주자 선호도' 25%…1위

황교안 19.6%·이재명 7.8%·박원순 4.9% 등 순위

리얼미터 조사 '범여권 48.6%' vs '범보수 36.4%'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차범위 밖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11명을 대상으로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이 총리에 대한 선호도는 전달인 지난 6월보다 3.8%포인트 오른 25.0%로 가장 높았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0.4%포인트 내린 19.6%로 뒤를 이었다.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인 이 총리는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인 황 대표를 오차범위(±2.0%포인트) 밖인 5.4%포인트 앞섰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이 총리가 황 대표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리는 호남·수도권, 40·30·50·20대, 진보층·중도층,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에서 선호도 1위로 나타났다.

황 대표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60대 이상, 보수층, 문 대통령 반대층,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선호도 1위로 집계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5%포인트 내린 7.8%, 박원순 서울시장은 0.4%포인트 떨어진 4.9%였다.

이어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0.3%포인트 하락한 4.6%,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0.1%포인트 오른 4.5%,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1.3%포인트 떨어진 4.5%, 김경수 경남지사가 2.4%포인트 내린 3.8%로 조사됐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은 0.2%포인트 오른 2.7%,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0.6%포인트 내린 2.6%,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1.8%포인트 빠진 2.5%,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0.6%포인트 상승한 2.5%로 대선 주자군에 이름을 올렸다.

범진보·여권 주자군(이낙연·이재명·김경수·김부겸·박원순·심상정) 선호도 합계는 2.6% 포인트 하락한 48.6%였다. 범보수·야권 주자군(황교안·유승민·홍준표·나경원·오세훈·안철수)은 2.6%포인트 내린 36.4%로 나타났다.

양 진영 격차는 12.2%포인트다.

범여권(민주당·정의당·평화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57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 ±2.5%포인트)에서도 이 총리가 6.6%포인트 오른 37.5%로 1위를 달렸다.

보수·야권(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2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 ±2.8%포인트)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0.5%포인트 내린 37.2%로 1위를 유지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강병운 기자

"경제 엄중…노조 파업자제, 사측 전향적 협상"

이 총리, 완성차 노조 파업 예고에 "대화·협력 절실"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현대차·기아차·한국GM 등 3개 완성차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달 중순 파업을 예고한 것을 두고 "안팎의 어려움을 감안해 노조는 파업을 자제하고, 사측은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해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상황에 일본의 경제공격까지 받고 있어 노사간 대립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올여름 노동 현안이 유난히 많다"면서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했지만,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국회의 과제로 남았고 국회의 탄력근로제 개편 논의도 더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총리는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노사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땀과 열정으로 더 열심히 뛰겠다"

'취임 1년' 서삼석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소금처럼 정직한 땀과 열정으로 서민과 약자, 농수축산인들이 잘 사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영암·무안·신안)은 6일 "전남 현안에 대한 정책제시와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지난해 6·13 재선거 이후 전남도당위원장 취임 인사를 통해 "'더 보고, 더 듣고,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당원과 도민,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서 위원장 취임 1년 이후 민주당 전남도당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당원 교육연수는 물론 당원·도민이 참여하는 봉사시스템, 정책기능 강화 등은 가시적 성과다.

서 위원장은 지난 1년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활발한 토론회 개최와 입법활동을 전개했다. 그는 농수축산업 및 여성 농어업인 관련법 개정안을 비롯, 섬주민 교통편익 증대와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 최저 생산비 보장, 천일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관련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특히 호남 유일의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광주·전남 국비 역대 최대 확보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서 위원장은 "올해도 지역현안을 꼼꼼히 살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일·경험드림 참가자 공통교육 이용섭 광주시장이 6일 오후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6기 일·경험드림 참가자 공통교육'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평화, 당권-비당권파 갈등에 분당 '초읽기'

"사퇴요구 명분 없다" vs "협상 결렬땐 탈당"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둘러싼 민주평화당 당권파와 비당권파 갈등이 7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지만 봉합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양측은 6일 정동영 대표와 유성엽 원내대표를 각각 대표자로 내세워 이견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전날 당 진로를 놓고 벌인 끝장토론에 이은 추가 논의다.

그러나 지도부 총사퇴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접점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비당권파는 지도부 총사퇴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어떤 통합 논의도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반면, 당권파는 정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순간 당권투쟁으로 비화해 논의의 순수성이 흐려진다며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양측은 일단 7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당 진로를 둘러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비당권파는 추가 협상이 결렬되면 집단 또는 순차 탈당을 포함해 모종의 행동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다만, 비당권파 안에서도 당장 탈당해 제3지대를 가시화시켜야 한다는 강경론과 정계개편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으니 조금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교차하고 있어 내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양측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조배숙·황주홍·김광수 의원 등 중립파 의원들이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관심사다.

당권파 관계자는 "당권을 내려놓으라는 비당권파의 요구는 명분없는 당권투쟁"이라며 "비당권파가 결국 탈당을 하겠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고 말했다.

비당권파 관계자는 "협상이 잘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집단탈당과 선도탈당에 이은 순차탈당 등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비당권파인 박지원 의원은 모 방소에 출연, "7일까지 정 대표 답변을 기다려서 그 답변을 보고 행동에 옮길 것이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농업인 피해 대비하도록 적극 안내"

이개호, 태풍 '프란시스코' 북상 긴급 상황점검

정부는 6일 오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에 대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이번 태풍은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는 만큼 과수 낙과·농작물 침수·비닐하우스 파손 등과 같은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다"면서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분야별·지역별로 예상되는 피해에 농업인이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어 "태풍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중인 농업시설에 민간인 접근을 차단하고 농업인이 농작업과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마을방송·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홍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복구지원이 가능하도록 미리 복구지원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광주 공공기관장 이번엔 전문가 선임될까

자진 사의 신용보증재단·여성재단 대표 공모 절차

광주시가 자진 사의로 공석이 된 신용보증재단과 여성재단 대표의 공모절차를 진행 중이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신용보증재단 이사회로부터 후보자 2명을 추천받아 검토 중이다. 1순위로는 광주은행 임원 출신, 2순위로는 산업은행 출신 인사가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염미봉 대표가 임기를 1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광주여성재단 대표도 공모가 진행 중이다. 시는 9일까지 서류를 받고 이달 말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후보로는 광주시 출신 여성 국장, 전직 시의원, 언론사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선 7기 들어 산하기관장의 물갈이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이 '전문성 있는 인물' 선임을 강조한 만큼 이번엔 보은·정실인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시장은 최근 정례조회에서 "산하기관장에 있어 지역발전 헌신 자세와 능력 있는 인물 발탁에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강성수 기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당신의 특별한 날을 아름다운 기억으로 빛나게 해드리겠습니다.

홀리데이 호텔 내 웨딩홀 주 웨딩시대 062) 385-70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55 (치평동 1158)